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에이즈관리활동

하 태 용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 1. 중구보건소의 주요 에이즈관리활동

중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예방 홍보, 감염인 관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 및 무료검사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전문강사초빙 교육 실시 및 역광장, 터미널 등에서 패넌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 관리는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하여 신분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진료·투약·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감염인에게는 경제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감염인 관리사례

제가 중구 보건소에서 1997년도부터 관리해오던 에이즈감염인 중 한 분에 대한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분은 1950년대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부산으로 진출하여 특별한 기술이 없이 25세때 원양어선을 타기 시작하여 16년간을 원양어선 선원으로 보냈습니다. 27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남부럽지 않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단란했던 가정생활은 그 분이 40세 때 부인이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분은 자포자기 상태로 원양어선을 다시 타게 되었으며 동남아 및 남미 등에 입항 시 외국인 윤락녀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몇 년 후 배타는 일을 그만둔 후 국내에서 조그만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서 에이즈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감염인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자살을 몇 번 시도하였지만 자식 때문에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경 감염인의 허리 주변에 대상포진이 발견되어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없어졌으나 '99년부터 에이즈의 다른 증상이 나타나 담당자와 상담 및 병원 진료를 2주에 1회 11개월 동안 신기한 바 식욕, 잠, 몸무게 등이 호전되었으나 2000, 1월경 자택에서 탈진하여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에이즈감염인 격리병동이 없이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꺼려하였습니다. 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병원 측에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 후 15일 만에 에이즈환자 말기의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순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안락한 새 세상을 향해 고난의 고삐를 놓은 그 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범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으나 장례식 때도 조문객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포함한 그분의 일가친척들은 사망자의 존재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조의를 표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졌나 봅니다.

그 후 저는 상담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에이즈 업무조차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종합병원의 격리병동이 없어 입원이 안된다”는 등의 일반인이 감염인의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후 저는 ‘담당자가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감염인을 누가 보살피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상담하며 의사선생님의 진료, 투약을 실시한 바 어느 젊은 감염인으로부터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제의도 받았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편견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일반인도 감염인을 차별없이 대하고, 에이즈 담당자에게 감염인 관리시 실비지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 3. 애로점과 건의사항

열심히 한수룩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즈 업무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선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인을 편향된 시각에서 대하는 병원 측의 감염인 입원 문제입니다. 감염인에 대한 담당의사의 입원을 요한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격리병동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다함으로 수차 병원을 왕래하며 설득을 해야만 하는 현 실태가 고쳐져야 할 문제이며, 둘째, 이 글을 보시는 「레드리본」회원 중 일반회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에이즈 감염인을 별시하는 것입니다. 감염인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이므로 항상 일반인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에 제의합니다. 감염인을 관리하다보면 감염자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담당자뿐이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요청 시 달려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야만 하고 감염인 대부분이 직업이 없어 진료시 식사비, 차비 등 실비 지원이 담당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 일선 보건소에서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이라 생각합니다.